

연중 제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 1독서 : 신명 30, 1-5
제 2독서 : 에페 4, 29-5, 2
복 음 : 마태 18, 19-22

순정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 18, 22)



하느님 나라 증거



양재철 신부 / 영등동 천주교회

예수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라고 분부하신다. 앓는 사람은 고쳐 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 주고 나병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 주고 마귀는 쫓아내라고 하신다(지난주복음). 오늘 복음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예견하시며,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일반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복음의 핵심인 하느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때 당하게 되는 두려움이다.

특히 마태오 복음사가는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다.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섭리로써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스승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며 증거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두려움에 대한 공포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

첫째,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마태 10, 26)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어두운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마태 10, 27)고 하신다.

둘째, 참된 생명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 하여라”(마태 10, 28).

셋째, 천상 아버지의 섭리가 항상 깨어 지켜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단돈 한 닢”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의 운명도 그분의 보살핌 아래 있어 아버지께서 지켜 주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독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덕분에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시다.”(로마 5, 15)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죄)의 세력이 정복되고, 하느님의 나라(하느님의 은총-사랑의 힘)가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소식이요, 우리가 매일 같이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축제와 전통의 미학

육 완 태(토마스 아퀴나스)

유럽의 봄은 축제로 시작된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대지는 온통 축제의 환희에 휩싸인다. 그들의 축제는 우리와 달리 부활절에서부터 시작, 5월과 6월로 이어지고 마지막 장미의 축제로 막을 닫는 게 보통이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와 민족들도 그 형태와 관습은 비슷한 게 특징이다. 그것은 얼었던(죽었던) 대지에 새 생명이 움트는, 이른바 부활의 의미가 갖는 절대적인 자연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봄은 구정(설)이 지나면서 시작된다. 한겨울, 눈 덮인 산 위와 뽕뽕 언 얼음 속에서 우리는 입춘을 맞이하는 것도 그것이다. 그것은 환한 봄을 염원하는 선조들의 지혜였으며 계절을 앞서가는 기다림이 미학일 수도 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대지의 기지개를 그토록 원하는 인간의 심성은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음을 이에서도 느낄 수 있다.

정월 초하루, 삼월 삼짇날, 오월 단오, 칠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축제는 농경이 주축을 이루던 당시 사회의 특질인 농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 가운데 가장 흥겨운 잔치는 역시 단오(端午)이다. 전주시의 경우 단오에 시민의 날을 만들어 풍성한 풍남제(豊南祭)를 연다. 지난 1주일 동안 덕진 일대에서는 난장이 벌어지고 온 시민은 그 흥겨움으로 한 주 일을 보냈다.

이웃과의 유대까지 단절되어 가는 이 시대에 도시에서의 이같은 축제는 한편으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노고에 눈물 겹기조차 하다.

그 민족, 그 지역의 문화는 결국 삶의 향기가 묻어 나는 것이어야 한다. 전북지역만 해도 전통을 지키기 위한 축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 이 모든 것이 전통을 되살리고 또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편임에 틀림이 없다.

남원의 춘향제(春香祭)가 그렇고, 정읍의 동학제(東學祭), 고창의 모양성제(牟陽城祭), 장수의 논개제전(論介祭典), 임실의 사선문화제(四仙文化祭), 익산의 마한제(馬韓祭) 등 이 모든 것이 그 고장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으로 시도되고 또 차츰 발전되어 가는 모습은 매우 호

못하다.

우리의 서구의 문명이 물밀 듯이 밀어닥친 지난 1백 여 년 동안 전통의 보존과 새로운 전통의 창조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 왔고 사라져 버린 전통을 찾아내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위환경의 변화, 공해의 증가, 농경 사회의 변천 등이 전통 보존에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서 있었다.

전주의 풍남제(단오제)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시대의 여인들은 덕진의 연못가에서 그 호드러지게 피어나던 창포를 꺾어 그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 타기며, 씨름 등으로 율창한 송림 사이에서 하루의 시름을 잊고 놀이에 흠뻑 빠져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염된 덕진 연못의 물은 머리감기는 고사하고 냄새 맡기도 역겨울 지경이다. 환경오염과 주위의 변화에서 온 현상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계속되는 시·군민의 축제는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진정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예전의 농경사회에선 주민 화합의 의미에서 축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산업 사회에서의 축제로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서구 사회와 같이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는 우리들의 축제는 결국 주민의 결속과 전통의 보존과 고수,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조가 절실함이 그 까닭이다.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부터 보너스 인생

성민호 신부 / 주현동 천주교회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니...”라며 힘차게 부르는 신자들의 성가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신부님에 대한 사랑을 성가에 실은 교우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6월6일(목) 오전 11시 주현동 성당에서는 성민호(야고보)신부님의 회갑 및 강론집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이날 유장훈 총대리 신부님과 사제 40여 명이 모여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은 화사한 한복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회갑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신부님은 60평생을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미사를 봉헌하는 신부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아마도 인간이 창조주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는지.

신부님은 3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지더니 이제는 1미터 앞의 사물도 정확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부님은 최선을 다해 사목을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목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 들이셨다. 34년간 사제 생활, 15년간의 군종사목과 19년간의 본당사목을 하시면서 언제나 신자들 편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셨기에 신자들도 신부님의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신부님의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인지 성당에 부임하시면 제일 먼저 신자들이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찾아보신다. 화장실에서부터 사제관, 성당에 이르기까지 설게도 해보고 요모조모 따져 가며 직접 현장에 뛰어드신다.

유장훈 총대리 신부님께서서는 강론을 통해 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신부님을 위로하시며 “신부님께서서 34년 전 서품식 때 주님 제단에 부복하여 약속한 ‘언제나 기쁘게 주님을 섬기겠노라’는 각오로 늘 새롭게 사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을 잘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참다운 제자가 될 때 눈이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 가는 만큼 영혼의 눈은 더욱 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에 신자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신부님께서서 펴낸 「씨뿌리는 사람들」 강론 모음집은 전례 시기별로 복음을 주제로 한 616쪽에 달



하는 책이다. 사제단 친목회장인 정승현 신부는 축사를 통해서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옥동자를 낳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뿌린 씨를 저희가 걷으면서 चु추며 흥겨움에 젖을 것입니다.”라며 신부님의 강론집이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흥겨움을 줄 것이라는 말씀에 신자들은 우레 같은 박수로서 응답을 드렸다.

신부님께서서는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회갑이라니 실감이 안 납니다.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미련 없이 사목생활을 했습니다. 60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큰절을 올립니다.” 하시며 허리를 깊이 숙이신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만 사실 살 만큼 산 것이죠. 지금부터의 삶은 텅입니다. 인생의 보너스죠. 보너스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보너스 인생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쁘게 살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에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보잘것없는 사제인 자신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신부님의 겸허한 말씀은 신자들 마음 안에 오래도록 메아리로 머물 것이다. 신부님의 마음을 담아 부르신 ‘구름 나그네’의 노랫말처럼 ‘미련없이 후회 없이 나는 간다 님 찾으러’ 생활하시는 신부님의 생활이 주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제의 삶이 되도록 기도드린다.

취재 : 편집부

특집

아물지 않은 상처,

쌀 지원은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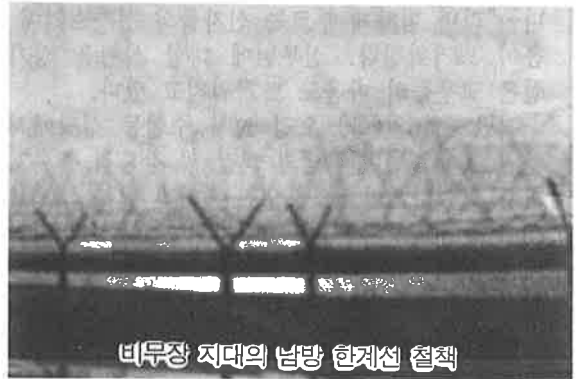
북한이 집중적인 홍수와 농작물의 흉작으로 인해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정부에서는 북한에 쌀을 지원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외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긴장 관계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 심지어 종교단체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꾸준히 지속되자 제동을 걸었다. 그러던 정부에서 얼마 전에는 유엔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이 대북지원을 구체화하자, 대북지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독 쌀은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군량미로 사용할 것일는 우려 때문인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기로 했다면,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일텐데, 쌀지원만은 안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너무 속좁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뜻하며, 말로는 한 형제 한 핏줄임을 강조하지만 속마음은 증오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과 분단, 전쟁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에 묶인 채 식민지 백성으로 온갖 핍박과 수탈과 압제를 받던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비무장 지대의 남방 한계선 철책

그러나 그 해방은 우리 민족 스스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기에 완전한 해방이 될 수 없었다.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성조기와 소련의 붉은기가 걸렸고, 미·소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어진 38선은 국토를 두 동강냈을 뿐 아니라, 한 형제 한 핏줄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다.

해방 후의 혼란을 극복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자주·자립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할 우리 민족은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남쪽에는 정치 모리배와 친일의 잔재들이 득세하면서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이름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남과 북은 다수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증오의 눈초리를 주고받더니 급기야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겨 주었고, 분단 51년을 넘기는 지금까지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남겨 놓았다. 38선은 휴전선으로 이름만 바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디자인계열 입시전문
고도 미술학원
대입반, 전문대반, 예고반, 취미반
입시디자인(원장 직강)
김 석 준(안드레아)
남 궁 선(루 시 아)
그린하우스제과점(객사옆) 앞
☎86-6575

웅지 입시전문학원
<에드네트 지정학원>
초등부·중등부
-차량운행-
박 정 화(비 오)
평화동삼우아파트 앞
교육상담 ☎82-4512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계시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화해와 일치로...

박대길(벨라도)

꾼 채 그대로 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을 뿐임을 확인하는 정전협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끔찍없는 마음의 철책선은 철거될 줄 모른 채 시퍼렇게 살아 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평화를 주러 이 세상에 오신 주여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심어 주소서/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통고 싸웠던/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분단의 아픔으로 쌓여진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모두가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모든 이의 일치를 원하시는 주여/갈라져 있는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반쪽만의 교회가 전체의 교회인 양 자처하면서/살아온 무관심을 깨닫게 해 주소서.”

한국 교회는 지난 91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도문은 화해와 일치, 그리고 용서의 뜻을 담고 있어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이 나오기까지 교회는 과연 이 나라의 하나 됨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철저히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92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침묵의 땅’으로 한정시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한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과 전쟁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모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 온 분들이 있지만,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함께 해 왔는지 되 돌아 볼 필요가 있다.

화해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치는 다양성 안에서 찾아야 한다. 분단 반세기가 넘어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허공에 맴도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진정 이 땅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행동하는 믿음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요십이 (1191)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모친(권희순 골롬바 76세)을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박진량 신부

순창성당 영농조합

〈품목〉·MSG 무첨가 순창 성가정 김치 · 무농약 순창성당 고추장, 100% 재래식 우리콩 된장, 간장 · 장수 한우, 돼지고기, 개화미, 현미, 잡곡 · 주문처: 전주 동산매장 ☎ 212-7442, 전동매장 ☎ 83-6136, 익산 ☎ 0653)52-5300, 군산 ☎ 0654)452-4939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희민(투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전주교구평협회보 「징검다리」 광고 모집

- 발행부수: 교구 내 전신자 배포 24,000부
- 가격: 10×24cm(하단 전면) 20만원 5×8cm 3만원
- 연락처: 전주교구평협 「징검다리」편집부 ☎ 85-2935

사목 단상

함께 살고 함께 죽자라는 마음으로

- 6.25를 기억하며 -



박성운 신부

생각만 해도 몸서리나는 6.25.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지도 벌써 46년 거의 반세기.

사제 생활 6년째 되는 아직 젖내가 덜 가신 풋내기 사제로서, 토막 영어 좀 한다는 이유는 군산 둔울동 본당(그 당시에는 군산과 옥구군에 본당 하나 있었음)의 주임신부로 임명받았다. 군정시대라 미국 종군 신부는 거의 필수하고 해당 지역 한국 신부에게 성무를 맡겨졌기에 비행장과 보급 부대인 항만 사령 부대에 늘 성무집행차 다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어느 곳보다 선교는 잘되어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150명이상의 세례자가 탄생하여 경향신문(당시 서울교구 소속)일면에 ‘군산에서 드디어 신자 배가운동 성공하다’라는 제목 하에 크게 기사화 되기도 했다.

6.25가 터지자 성당은 수라장으로 변했다. 항구 도시라 공소에서, 다른 곳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몰려와 배를 구해 달라는 등 북새통을 이루었다. 거기에 별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어디로 피난 갈 것인지,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성당 밑에서 사는 오〇〇 사람은 신자도 아니면서 마치 문안이나 하듯이 자주 성당에 와서는 어디로 피난 갈 거냐, 갈 곳이 없다면 자기 친척집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등 관심을 보였으나 조금 이상해서 경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고정간첩이었다.

마침 교구장(김현배 주교)으로부터 “신부님은 우리교구에서 미군과 제일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앞잡이로 오인되어 잡히면 총살 감이니 속히 피신하라”는 서신을 받고, “주교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비록 착한 목자는 못되지만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신자들과 함께 죽고, 살

아도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회신을 보내고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요한 10, 11)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하였다.

그후 전세가 극박해지고, 인민군이 장항에서 군산과 비행장에 대포를 쏘는 소리가 진동을 하였다. 이 때 성당과 사제관 등에 중요한 것은 땅에 묻고 의복 몇 가지와 공소용 미사도구와 병자성사가방을 챙겨 대야 공소의 회장(박반석·베드로)댁으로 피신했다. 그 당시 대야에는 성당을 짓고 있었기에 거기에는 신부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할 것이라는 짐작과 또 회장 댁은 면청사 뒷집이고 농사 및 이용법을 경영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집이기에 피난처로는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그 댁의 골방을 차지하고 중의 적삼으로 변장하고 오직 주성모께 의탁하고 매일 새벽 4시에 문을 가리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미사를 봉헌하였다. 9월말경 수복이 되어 본당에 귀환하였고 그때 본당의 참상은 무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성당을 복구하면서 신자들은 하나가 되었고 신앙은 불타올랐다.

보잘것없는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놀랍기만 하다. 그 당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사목 생활에서 물러나 있지만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이다.

박성운 신부님께서서는 44년에 서품을 받으시고 정읍, 둔울동, 부안, 중앙, 남원, 임실, 함열, 서학동, 진안, 팔마 등 10개 본당과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96년 2월에 은퇴하셨습니다.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주)82-2347 (야)225-5755

코리아나 웨딩타운

정통클래식 고품격 예식장
노 상 용(베드로)
전주역 광장앞(주차 150대)
예약문의 ☎241-1212

코리아나 부페

특급호텔식 정통 부페
20석~400석(대·소 연회석 완비)
회갑연, 칠순잔치, 단체모임 특별우대
노 상 용(베드로)
전주역 광장 앞(주차 150대)
예약문의 ☎241-4800~1

우성 종합 조경

조경공사·설계·정원공사
각종 관상수 상담
송 용 의(라우렌시오)
장 공 순(디오디시아)
☎(0652) 253-5330~1
휴대폰 011-652-1333

교구소식

- ❖ 교황주일 2차헌금
 - 때 : 6월30일(일)
 - 장소 : 각 본당에서 실시함
- ❖ 교구장 2000년 대회년 주교특별위원회모임
 - 때 : 6월27일~28일
 - 장소 : 춘천
- ❖ 부제품 대상자 선발예식
 - 때 : 6월25일(화) 오전 9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 중·고 여름연수
 - 때 : 6월25일~27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초등부 신앙학교 연수
 - 때 : 6월28일~30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7월4일(목)
 - 주제 : 감사와 찬미
 - 강사 : 박찬길 신부
 - 때 : 7월9일(화)
 - 주제 : 성체 신심
 - 강사 : 박종근 신부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7월6일~7일
 - 주제 : 하늘님께 오르는 생활 (진복팔단)
 - 강사 : 장인산 부부
 - 문의 : 73-6600
- ❖ 김정민 신부 주소

テ 229
相模原市 失部 4-13-1
カトリシワ相模原教會 JAPAN
☎001(002)81-427-55-9318
-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6월28일(금) 밤 11시
 - 장소 : 전동 성당
- ❖ 축! 영명
 - 24일(성요한세자) 김봉희, 왕수혜, 한기호, 김요한, 양석현, 정성만 신부님
 - 29일(성베드로, 바오로) 서석기, 김병엽, 김영신, 박찬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김교동, 고봉호, 이득재, 김혁태 신부님

■ 권해드립니다 ■

· 꿈꾸는 에밀리
L.M.몽고메리 / 신지식
6,500원 / 열린

동화나라의 요정같은 어린소녀 에밀리의 이야기다. 이 책은 「빨강머리 앤」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의 글로서, 창작에 열중한 그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에밀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천국에서
카세트 3,500원, CD 8,000원
바오로딸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들은 대부분 수사들이 부른 곡인데 비해 이 곡은 프랑스의 노트르담수녀회 수녀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그레고리오 성가이다. 장중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맑고 섬세한 목소리로 듣게 되면서 또 다른 거룩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전제품을 지혜롭게 쓰는 법

<냉장고>

- 더운 음식물은 식혀서 넣어야 하며, 냉장실은 60%만 채웁니다.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 방열판 먼지는 수시로 제거
-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깐 생각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냉장고 내부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빨리 열고 빨리 닫으므로 냉장고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전력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 여름철 실내 온도를 1℃ 정도 높게 유지하면 약 20%의 전력이 절약됩니다.
- 에어 필터(공기 거름장치)에 먼지가 끼면 냉방 효과가 5% 정도 떨어지고 각종 병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야 합니다.
- 냉방면적에 알맞은 용량을 선택합니다.

기아·아시아

딜러 영업소

송수환(다니엘)
이영자(아녜스)

시트카바, 렌팅, 적재함보장 등 10여가지 선물,
신자분보유 중고차감정 및 이권, 검사, 폐차대행

☎(0652)225-0045
(전화문의 환영)

선경 컴퓨터 타운

고객이익보장 대세일!
삼성, 삼보 컴퓨터 총판

이병균(프란치스코)

평화주공 1단지 입구
☎(代)231-2237

개업 현대치과(봉동)

<교우분들 환영>
원장 박영배(스테파노)
이기정(모나)
봉동보건진료소 앞, 내과 2층
☎ 261-4775
호출기 015-680-3396

서해수석

부안매화, 청송꽃돌
꽃돌가공, 좌대전문, 전시판매장
고영민(요셉)
서순금(테클라)
부안 전라주유소 앞
☎(0683) 81-1191

라피도

여름선달, 바캉스(텐트)용품 일절
육종만(안토니오)
전정숙(아가다)
고사동 오거리
☎ 71-1122~3

전주성식노트사

(구 신일노트)
문구류, 사무용품, 질관 도소매
오태환(그라또)
김해춘(힐데가르다)
전일상호신용금고 옆
☎(0652)75-2401, 250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인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민족의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의 날
- 1. 북한 주민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2. 중·고 여름연수: 25~27일, 나바위 피정의 집
- 3. 초등부 신앙학교 연수: 28~30일, 나바위 피정의 집
- 4. 모임: ①천사의 모후Cu, 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계속형제회-오늘, 후 2시
③제대회-26일, 어머니미사 후
- 5. 본당 기우회(바둑동호회) 회원 모임: 30일 공식미사 후, 휴게실
*바둑에 관심 있으신 분 참여바람.
- 6. 본당 내 비품 관리에 협조바람.
*회합실 전등 및 선풍기 전원 끄기
- 7. 다음주일(30일): 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 8. 금주 전례: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성우회, 해설-박우순, 독서-①노편석 ②조분님
신자들의 기도-정선업 부부
봉헌-최만식 부부
- 9. 차주 전례: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사목회, 해설-이수원, 독서-①서남석 ②유재간
신자들의 기도-송명준, 서성자
봉헌-박춘근 부부
- 10. 금주 청소: 중노 18, 19반
- 11. 차주 청소: 중노 20, 21반

□ 지난주 봉헌금: 1,131,450원 □ 교무금: 923,5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인 86-3454 사목회장 박 상 기

- 1.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의 날-북한 동포를 위한 2차 헌금 실시
- 2. 중·고등부 교리교사 여름연수: 25일~27일, 나바위 피정의 집
- 3. 초등부 교리교사 여름연수: 28일~30일, 나바위 피정의 집
- 4. 병자 봉성체: 28일(금) 후 2시
- 5. 주간 모임: M.E모임-28일(금) 후 7시 30분
- 6. 유아 세례: 29일(토) 후 7시
- 7. 다음주일: 교황주일-2차헌금 실시
- 8. 사목회 부부동반 단합대회: 30일(다음주일)
- 9. 복지신용협동조합 장학생 선발: 문의-복지신행 총무과
T.88-4404(7월6일까지)
- 10.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김장환 가족
- 11.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장홍덕 부부,
봉헌-홍달자, 김미자
- 12. 성당 청소: 29일(토) 밝히오리다 Pr., 천주의 모후Pr.
- 13. 감사헌금: 신일 3반-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676,800원 □ 교무금: 1,140,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실
F A X 85-6652 수 너 인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읍시다.
- ◎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의 날
- ◎ 오늘: 북한 주민을 위한 2차헌금 실시
- 1. 금주 모임: ①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성마리아Co.-전동 성당, 오늘 후 2시
③꾸르실로 울드레야-29일(토) 후 8시, 성당
- 2. 차주 모임: 성모회
- 3. 지속적인 성체조배: 27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
- 4. 주일미사에 편하지 말고 미사 10분전에 성당에 옵시다.
- 5. 다음 주일: 교황주일-2차헌금 실시
- 6. 중·고교사 여름 연수회: 25일(화)~27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 7. 초등부 신앙학교 교사 연수회: 28일(금)~30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 8. 성당 청소: 금주-바다의 별Pr.
차주-천사들의 모후Pr.
- 9. 금주 전례: 해설-이훈봉, 독서-①박귀철 ②이순자
봉헌-이순기 가정
- 10.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이육성 ②최정애
봉헌-이기봉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15,460원 □ 교무금: 315,0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 너 인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의 날
- ◎ 북한 주민을 위한 2차헌금 실시
- 1. 중·고 교리교사 여름 연수: ①일시-25일(화)~27일(목)
②장소-나바위 피정의 집
③주제-가난과 나눔
- 2. 초등부 교리교사 여름신앙학교 연수: ①일시-28일(금)~30일(일)
②장소-나바위 피정의 집 ③주제-함께 나누어요!
- 3. 반모임: 26반-26일(수) 정의양(보나)씨택, 후 8시,
T.82-4353
17반-27일(목) 박선주(발바라)씨택, 후 3시,
T.84-5121
- 4. 금주 모임: 반장회-23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 5. 청소 안내: ①금주-상아탑Pr.
②차주-경의의 동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1,065,300원 □ 교무금: 835,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인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인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축! 본당 신부님 영명: 24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람.
- 1. 금주: 북한 주민을 위한 2차 헌금 실시
- 2. 주간 모임: ①성지회-28일 후 8시
②성마리아 꼬미시움-29일 후 3시
- 3. 첫 영성체 아동 모임: ①모집-9일~23일(서류는 사무실에서)
②교리-7월 2일~8월 15일
③부모님 모임-27일, 전 10시,
장소-총연관
- 4. 중·고 교리교사 연수: 25일~27일, 나바위 피정의 집
- 5. 초등부 교리교사 연수: 28일~30일, 나바위 피정의 집
- 6. 액정 비전 삼영: "예수님의 발자취 3탄", 25일(화), 27일(목)
전 11시~11시30분, 후 9시~9시30분, 총연관
대상-전신자(예비신자 포함)
- 7. 감사헌금: 삼십만원-오제갑(요아킴) * 감사합니다.
- 8. 차주: ①교황주일 2차헌금
②교부님 납부주일
- * 섬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95,490원 □ 교무금: 1,994,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인 232-5004 주임신부 이 삼 실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상 근

- ◎ 전주시민의 날(풍납제) 난장 먹거리 개장: 서신동 다리 건너 야구장 전 좌측. 전신자 봉사 및 참여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 1. 오늘: 북한 주민을 위한 2차헌금 실시
- 2. 각 분과 위원별 전체 모임: 25일 저녁미사 후
- 3. 봉성체: 26일-1반(전동쪽),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람.
- 4. 초등부 신앙학교 연수: 28일~30일, 나바위 피정의 집
- 5. 오늘 모임: ①울드레야, 풍송회-공식미사 후
②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 6. 주간 모임: ①형제 기도회-24일→6구역, 27일→8구역 8.9반
②빈첸시오회-25일 전 10시
③자모회-28일 어머니미사 후
④성가대 율례회의-28일 후 8시
- 7. 차주 모임: 애분분과 회의 및 교육-공식미사 후, 지하 교리실
- 8. 신축 헌금 일천만원 봉헌: 이병희(토마) 부용집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9. 어린이 첫 영성체 사진: 사무실에서 찾아 가세요.
- 10. 성전 신축을 위한 주유권 판매: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541,560원 □ 교무금: 2,867,000원